

‘치수(治水)’ 넘어선 ‘친수(親水)’로,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나아갈 길



이건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지사장

인류의 문명은 하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물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흐름에 맞닿아있다.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통한 식량 생산성 증대는 국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최근 예측 불가한 기후 변화 속에서 어떻게 물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거대한 과제가 되어 왔다.

농어촌 환경 변화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 요구가 급증하면서 농업용수 관리의 패러다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용수 관리는 ‘이수(利水)’ 중심에서 시작된다.

이는 농업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 불안정성이 가

속화되면서 물의 효율적 관리와 자연재해 대응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단순한 농업용수 공급을 넘어선 ‘치수(治水)’로의 전환이 이어져 왔다.

‘치수’는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의 흐름을 관리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은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하천 및 수로의 정비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물 관리로 확대되었다.

1908년 12월 8일 옥구서부수리조합으로 시작하여 2024년 창립 116주년을 맞이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한 세기가 넘는 동안 농어촌 용수개발 및 공급 등에 있어 중추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약 46만ha에 이르는 공사관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경제활동은 물론 식량안보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은 치수에서 더 나아가 친수(親水)를 향하고 있다. 이는 물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과 인간,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개념으로, 자연 생태계 회복과 물의 재활용, 농업과 자연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기존의 치수 기능을 넘어 생태적인 물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농업용수 관리 방향은 친환경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는 데 있다.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물순환 시스템을 재정비 함으로써 기존의 단방향 공급에서 벗어나 물의 재활용 및 효율적인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사람과 함께하는 친환경 용수체계 마련을 통해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하천을 흐르는 물은 다양한 생물 서식지를 제공하며, 생태계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많은 양의 농업용수가 하천에서 추출되어 사용된 후 다시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거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물질순환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농어촌공사는 하천의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 생태적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자연 친화적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농어촌용수’를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

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로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용수를 정의하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농업용수 순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벼 등의 작물 생육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의미하는 농업용수의 범위를 하천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와 하천수 등 환경용수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유기적 순환 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시안적 용수 관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 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며 안정적 용수공급은 물론,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을 통해 농업인의 곁을 지켜왔다. 앞으로 공사는 치수의 안정화와 더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농업용수의 재정의 하에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용수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의 물길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새 물꼬를 터 나아가야 할 것이다.